

제54호·2018년 2월 7일

항만·물류연구본부 | 국제물류연구실
총괄·감수 | 이 성 우 본부장

KMI 극동러시아 동향 리'포'트



한국해양수산개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



물류동향

일본, 러시아 극동개발 자체 기술이전 확대 계획

- 일본은 러시아 극동지방의 블라디보스토크 중심으로 일본 기업의 기술을 활용한 도시 개발을 진행 중임
 - 교통량에 따른 신호를 자동 조정해 교통정체를 완화하는 일본 신호시스템을 설치하고 굴삭작업 없이 수도관을 수리하는 기술 등을 도입함
 - 이는 북방영토 교섭을 목적으로 일본-러시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평가됨
-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시베리아-극동개발을 '21세기 국가적 우선과제'로 추진하고 있음
 - 그 중에서도 블라디보스토크는 극동지역의 중심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을 추진 중임
 - 이에 블라디보스토크를 동방경제포럼의 개최지로 선정하고, 카지노 유치를 추진하는 등 경제·관광 거점으로 개발할 계획임
- 2016년 12월 러-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은 극동개발 협력에 합의함
 - 이러한 합의에 의거하여 일본 정부는 올해 5월 러시아 방문 시 양국 정상회담과 더불어 블라디보스토크 개발 계획을 제안할 예정임
- 도시 인프라 이외에도 역 인근의 재개발과 관광시설 정비, 대기 오염에 영향이 적은 일본의 쓰레기소각장 도입도 제안 예정임
 - 일본 정부는 이러한 안건을 러시아 측에 제안하고, 러시아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임
 - 국제협력은행(JBIC,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)의 융자 등으로 자금지원을 계획하고 있음

자료: <https://www.nikkei.com/article/DGKKZO26509820T00C18A2MM8000/>(검색일: 2018년 2월 6일)

최나영환 전문연구원
051-797-4677, chnayoung@kmi.re.kr



러시아와 중국, 새로운 선도개발구역 공동 투자 계획

- 유리 트루트네프 극동지역 전권대표겸 부총리와 왕양 중국 부총리는 지난 수요일 라중 협력 및 극동·바이칼, 동북지역 개발위원회 대표자들과 회의를 개최했음
 - 러 프리모르스키 주의 포그라니치니 지역과 중국의 수이펀현 도시 사이에 선도개발구역을 공동으로 개발할 것을 합의했음
- 특히 투자금 약 15억 달러를 유치할 것이며, 넓이는 약 413ha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음
 - 러시아 영토 233ha, 중국 영토 180ha을 기반으로 선도개발구역이 개발될 계획임
- 그 외에도 2월 7일 중국과 러시아는 '지방교류협력의 해'를 맞아 축전을 교환하며 긴밀한 관계를 과시했음
 - 그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양국간 지방협력의 거대한 잠재력을 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
 - 또한 중국 철도청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보스토치니 항만까지 이어지는 도로연결 건설 사업 및 훈춘과 자루비노항을 잇는 사업 투자 의향을 지속적으로 밝혀옴에 따라 2월 6일 안드레이 타라센코 연해주 주지사와 MOU에 서명했음

자료: <http://vostok.today/20035-na-granice-rossii-i-kitaya-sozhdadut-tor-za-15-mlrd.html>(검색일: 2018년 2월 8일)

김엄지 연구원

051-797-4776, umjikim@kmi.re.kr



극동 지역에 약 20억 루블 상당 신규 투자 유치

- 지난 일주일 동안 극동 지역에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가 유치됨
 - 새로운 투자기업은 3개 업체로 선도개발구역 '프리아무르스크', '캄차트카', '고르니 보즈두흐'에 입주함
 - 극동개발공사에 따르면 입주계약에 따라 기업들은 약 20억 루블을 프로젝트에 투자할 예정이며, 이에 따라 약 477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함
- 또한 러시아 정부는 지난 1월 '아그로 파브리카' («Агро Фабрика»)사의 요청에 따라 선도개발구역 '프리아무르스크'에 탐보브스크(Tambovsk) 지역을 포함시켰으며, 이에 따라 입주기업은 옥수수과 콩 등을 원료로 약 6만 8,400 톤의 사료공장 건설이 가능해짐
- 선도개발구역 '캄차트카'에 입주한 '비자지-아프트' («ВИТЯЗЬ-АВТО»)사는 대구, 연어 등을 처리하는 수산물 가공공장을 건설할 예정임
 - 건설될 수산물 가공공장은 냉동 필레, 블록 필레, 수산물 스테이크 등의 가공식품을 생산할 계획이며, 1일 생산량은 약 100톤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함
- '브릴리안트'(ООО «Бриллиант»)사는 사할린주 주도인 유즈니-사할린 지역에 약 150개의 객실과 회의장을 갖춘 4성급 호텔단지를 건설할 예정임
 - 본 호텔단지는 2020년 완공될 예정이며 '힐튼'(Hilton)사가 호텔 운영을 맡을 계획임

자료: <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news/12532/>(검색일: 2018년 2월 5일)

김은미 리포터

051-797-4776, usea1004@gmail.com